

‘설욕전 성공’ 광주FC, 울산 잡고 코리아컵 4강 진출

후반 30분 조성권 헤더 결승골로 1-0 승...지난해 이어 2연속 4강행
준결승전 광주 vs 부천, 전북 vs 강원...18일 수원과 리그 순위 싸움

광주FC가 설욕전에 성공하면서 코리아컵 4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광주FC가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HD와의 코리아컵 8강전에서 전반 30분 터진 조성권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4강행을 성공한 광주는 K리그2 생존팀 부천FC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첫 결승행을 막았던 울산과의 승부였던 만큼 더 값진 승리였다.

광주는 지난해 울산을 4강 상대로 만나 1-2차전 합계 2-3으로 지면서,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이정호 감독은 설욕전을 위한 필승 라인업을 가동했다.

아사니, 헤이스, 가브리엘을 동시에 출격시킨 이정호 감독은 3일 ‘홍명보호’ 소집을 앞둔 변준수도 그라운드에 올렸다. 6월 1일 대구전에서 안와골절 부상을 입으며 자리를 비웠던 ‘수호신’ 김경민도 골대를 지키는 등 승리를 위한 전력에 구축했다.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던 후반 43분 울산 김영권의 퇴장으로 광주가 수적 우위를 점했다.

전반 28분 경고 카드를 받았던 김영권이 전반 43분 아사니에게 백태클을 했다. 이번에도 주심이 옐로 카드를 꺼내 들면서 김영권은 경고 누적으로 그라운드를 벗어났다.

울산 수비의 핵심이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이어간 광주는 후반 30분 기다렸던 골을 만들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신창무가 키퍼로 나서 왼쪽에서 왼발로 공을 띄웠다. 문전에서 높게 뛰어오른 조성권이 헤더를 시도했다. 울산 수문장 조현우의 왼손을 스친 공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면서 팽팽하던 균형이 깨졌다.

이후 두 팀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지만 더 이상 골대는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부상 복귀전에 나선 김경민이 우여곡절 ‘클린시트’를 장식하면서 팀의 4강행을 확정했다.

이날 광주와 함께 전북현대, 강원FC, 부천FC가 준결승 티켓을 차지했다.

전북은 FC서울 안방에서 치러진 8강전에서 후반 42분 기록된 송민규의 골을 지키면서 1-0 승리를 거뒀다.

K리그1 선두 질주 중인 전북은 이날 승리로 2관왕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전북은 강원FC와 준결승전에서 만난다.

대구IM뱅크파크를 찾은 강원은 전반 43분 구본철의 선제골에 이은 김건희의 골로 후반 3분, 2-0을 만들었다. 대구는 무릎 인대 부상에서 돌아온 세정야의 페널티킥골로 후반 16분 득점에 성공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강원에 승리를 내줬다.

부천FC와 김포FC의 K리그2팀 맞대결에서는 부천이 웃었다.

전반 5분 만에 부천 최재영이 골 맛을 본 뒤 전반 38분에는 김동현이 득점에 성공했다. 부천은 2-0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코리아컵 8강전에서 1-0 승리를 거둔 뒤 팬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FC 제공>

으로 앞선 후반 9분 수비수 이상혁의 자책골로 실점은 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갈레고의 골로 3-1 승리를 거뒀다.

K리그2를 대표하게 된 부천은 광주와 준결승에

서 만난다. 1차전은 8월 20일 오후 7시, 2차전은 8월 27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지난 6월 28일 K리그1 안양전 2-1 승리에 이어 코리아컵에서 연승을 달린 광주는 기본 홈계 A매

치 휴식기에 돌입했다. 광주는 끝맛 휴식을 보낸 뒤 18일 오후 7시 30분 수원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서 리그 순위 싸움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라인-루르 하계U대회 선수단 격려

16일 개막...4개 종목 8명 참가

광주시체육회가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 나서는 선수단을 격려했다.

시체육회 전갑수 회장은 3일 체육회관 접견실에서 수영 다이빙 고병진 감독과 하계U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오는 16일부터 독일 라인-루르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하계U대회에는 총 18개 종목 150개국 8500명이 참가해 열전의 무대를 펼친다. 대한민국은 13개 종목에 295명을 파견해 종합 10위권 진입과 금메달 10개 이상 획득을 노린다.

광주에서는 고병진 감독을 포함해 8명이 대회에 참가해 4개 종목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지난해 경남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싱크로다이빙 3m 1위에 오른 김지육을 필두로 최강인·손성환·김승현 등 시체육회 소속 4명이 수영 다이빙 종목에 나선다.

OK저축은행 아웃사이드 히어로 활약하고 있는 김전우(조선대)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배구 코



광주시체육회가 2025 라인-루르 하계U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고병진 감독(왼쪽부터), 김지육, 김승현, 전갑수 회장, 최강인, 손승환, 이재성. <광주시체육회 제공>

트에 오른다. 광주교통공사 소속으로 용인대에 재학 중인 김민주는 여자 유도 -78kg에 출전한다.

아시아선수권에서 400m 계주 사상 첫 금메달을 합작한 이재성(광주시청)의 질주도 펼쳐진다. 이재성은 지난 2024년 한국체대를 졸업했지만, 개최 연도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졸업한 경우 대회에 참

가할 수 있다.

전갑수 회장은 “선수 개개인이 국가대표이기 전에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임을 기억해 광주의 명예를 드높여주시기를 응원한다. 건강과 안전에 유념해 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맨시티 꺾은 알힐랄, 보너스 232억원 쫓다

클럽월드컵 8강 진출 보너스
1인당 7억2500만원 지급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16강전에서 ‘강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를 꺾고 8강에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 부자구단’ 알힐랄이 선수들에게 화끈한 보너스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스포츠미디어 협회 회원이자 아사르 알알우사르의 기자인 아메드 알카리니가 보너스 금액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알카리니에 따르면 알힐랄이 선수 1인당 지급한 맨시티전 승리 보너스는 200만리얄(약 7억2500만원)이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26명의 선수와 코칭스태프 6명을 포함하면 총 보너스 금액은 6400만리얄(2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힐랄은 지난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캄핑 월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럽월드컵 16강전에서 맨시티와 120분 연장 혈투 끝에 4-3으로 승리했다.

알힐랄은 경기가 끝난 뒤 파드 빈 나펠 회장이 라커룸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회장이 보너스 금액을 발표하는 순간 영상이 잠시 잘렸고, 이어 다음 장면에선 선수단이 환호하는 장면이 이어지면서 실제 액수는 비밀에 부쳐졌지만 취재진을 통해 공개됐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알힐랄 선수단이 클럽월드컵 16강전에서 맨시티와 120분 연장 혈투 끝에 4-3으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알힐랄 SNS 캡처>

“체급 8개로 개편”...아시아주니어역도선수권 첫 적용

IWF, 올해 6월부터 변경...10일까지 카자흐서 개최

2025아시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 국제역도연맹(IWF)이 재편한 체급 규정이 처음 적용된다.

올해 아시아주니어선수권은 4일부터 10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다.

2018년 남녀 8체급을 남녀 10체급으로 확대했던 IWF는 올해 6월부터 남녀 8체급으로 체급 규정을 변경했다.

남자부 시니어와 주니어(20세 이하) 체급 8개는 60·65·71·79·88·98·110·110kg급 이상이다.

여자부 시니어·주니어 대회는 48·53·58·63·69·77·86·86kg 이상급의 체급 규정을 따른다.

유소년(13~17세) 체급은 남자 56·60·65·71·79·88·98·98kg급 이상, 여자 44·48·53·58·63·69·77kg·77kg 이상급으로 재편했다.

지난 2018년 체급 재편에는 ‘약물로 세운 세계 기록을 모두 지우겠다’는 의도가 담겼고, IWF도 이를 숨기지 않았다

대한역도연맹은 올해까지는 기존 남녀 10체급

규정에 따라 국내 대회를 치르고, 내년부터는 IWF 남녀 8체급 규정 변경을 국내 대회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아시아주니어선수권에는 한국 선수 10명이 출전한다.

주니어 여자 77kg급 전희수(경북체고), 86kg 이상급 이하은(경남체고), 유소년 71kg급 김하준(원주고), 94kg급 김민근(경남체고), 94kg 이상급 김인혁(원주고), 여자 63kg급 이다연(경남체고), 77kg급 김한결(고양시역도연맹), 77kg 이상급 김제량(광주체고)이 대표로 선발됐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발레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일시 / 장소 :
2025-06-14(토) 16:30, 19:00 / 상무시민공원
2025-06-21(토) 16:30, 19:00 / 생암리권공원
2025-06-28(토) 16:30, 19:00 / 상무시민공원
2025-07-04(금) 19:00 / 교통문화현수원
문의 : 062-522-8716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별의 향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06-05(목)~2025-07-06(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